

8개 의대 교수·전문의 시국선언... '집단사직' 현실화 우려

>> 1면 '메트로경제와 함께'서 계속

■ 제출서류

-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
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.metroseoul.co.kr, 카페(아랑), 구인 사이트(잡코리아, 사람인)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- ② 졸업(예정)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

■ 원서접수

- ① 기간 : 2024년 2월 29일(목) ~ 2024년 3월 29일(금)
- ② 접수방법 : e메일 접수 recruit@metroseoul.co.kr / 방문 및 우편 접수(3월 29일 도착분) 채용 사이트(사람인, 잡코리아) 접수 가능
- ③ 접수장소 :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(옥인동) (주)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

■ 채용일정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2024년 4월 3일(수)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·취재역량 평가시험

- ① 일시 : 2024년 4월 9일(화) 10시 ~ 16시 40분
- ② 장소 :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
- ③ 내용 : 공지하는 취재 주제로 기사 작성하여 제출

·면접(실무 면접, 임원 면접)

- ① 일시 : 2024년 4월 11일(목)~12일(금)
- ② 장소 :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
- ③ 기타 :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

·최종 합격자 발표

- 2024년 4월 17일(수)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■ 기타

-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-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③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로 연락바랍니다. ☎ 02-721-9851

“정부 일방적 정책, 의료체계 혼란”
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 사이트 개설

교수들 집단사직 결의는 안했지만
상실감·피로 누적에 사직 우려 커
울산의대 전 교원 사직서 제출 결정

의대 증원에 반발한 정부와 의사들
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
마지막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
도 본격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.

국내 주요 대형병원 교수와 전문의들은
'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'을
내고 연대 서명에 나선 상태다. '집단사
직'과 같은 단체 행동을 결의하진 않았
지만,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, 상
실감과 회의감이 커지면서 자발적 사직
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.

◆교수들 정부에 책임 물었다

10일 의료계에 따르면 8개 병원 교수
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
면서 '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'
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료 의사
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. ▲서울
아산병원 ▲여의도성모병원 ▲강남세
브란스병원 ▲세브란스병원 ▲이대서
울병원 ▲분당차병원 ▲국민건강보험
일산병원 ▲고대안암병원 소속 의료진
이 이름을 올렸다.

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“정부의 일
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
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
있다”며 “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



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응급실
안근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. /뉴스1

우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
협받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와 지방의료
의 위기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.

이들은 “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
자랑해오면서, ‘값싼 의료’의 뒤에 숨
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은 간과했
다”며 “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증,
응급, 그리고 지역 의료 붕괴이다. 일
방적인 ‘필수의료 지원’ 정책이 현장에
서 외면 받고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
구하고, 정부는 오늘도 이를 반복하며
의료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”고
지적했다.

이어 “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
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”며
“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몰락을 구제
할 대책을 제시하여 전공의들과 현장에
종사하는 의료진들의 비판적 의견 또한
수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

련할 것을 촉구한다”고 밝혔다.

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긴
급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추진에 대한
대응책을 논의했다. 앞서 서울아산·울
산대·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
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
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의대생과
전공의 복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
뜻을 모았다.

전국에서 의대 교수 비대위 체제를
처음 꾸린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1
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.

◆“책임감으로 버티긴 역부족”

교수들까지 집단사직에 나서는 것
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, 집단사직
을 결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김창수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 비
대위원장은 “우려했던 ‘집단사직 결
의’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교수
협의회 기본 원칙은 교수는 환자를 봐

야한다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하지만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
적이 아니더라도 사직을 고려하는 교
수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의
료 현장에서 누적되는 피로와 현재 상
황에 대한 상실감이 가장 큰 이유다.

국내 빅5병원에 재직중인 한 교수는
“많은 교수들이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
다”며 “하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보
면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을 막을 수는
없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그는 “수술은 할 수 있지만 수술 이
후 회복 과정을 지켜줄 수 있는 일손이
부족하니 많은 수술이 미뤄지고 있다”
며 “정부와의 협의점도 해당도 보이지
않으니 교수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피
로도 높아지고 있다”고 토로했다.

이어 “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아
픈 환자를 제대로 고칠 수 없고 제자들
도 잃어버린 현실에 매일 너무 많은 회
의와 상실감을 느낀다”며 “전공의들이
돌아오지 못한다면 장기화되는 이 상
황을 버틸 수 있는 교수들은 많지 않을
것”이라고 우려했다.

실제로 정부의 전공의 징계에 반발
한 의대 교수들의 이탈 조짐은 이미 나
타나고 있다.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
수들도 적지 않다.

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
3개 수련병원 교수 254명이 참석한 가운
데 긴급총회를 열고 전 교원이 사직서를
제출하기로 결정했다. 사직서 접수 일정
과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
다. /이세경 기자 seilee@metroseoul.co.kr

“비트코인, 연말 15만 달러 도달 가능성”

>> 1면 '반감기 한 달 앞둔'서 계속

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직후부터
지난달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
하루 평균 2억6000만달러의 자금이
순유입됐고, 지난달 말부터는 하루 평균 5억

5000만달러가 유입되고 있다. 다양한 상
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비트코인의 미래
가치에 투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
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추가 상
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톱 리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는 “비

트코인이 단기적으로 8만2000달러에
도달하고 올해 말까지 15만 달러까지
급등할 가능성이 있다”며 “새로운 현물
비트코인 ETF에 따른 수요 개선과 반
감기에 의한 공급 축소, 우리가 예상하
는 통화정책 완화가 가격 상승의 촉매
제가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미국의
금리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비트코인
강세로 이어질 것이라 해석이다.

코빗 리서치센터는 “과거에 이처럼
확실한 수요저를 확보한 상황에서 비
트코인 반감기를 맞은 경우는 없었다”
며 “아직 현물 ETF를 추천 리스트에
올리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도 많고, 현
물 ETF를 편입하는 ‘액티브 운용 ET
F’도 출시될 것으로 보여 현물 ETF의
자금 유입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”고
말했다. /이승용 기자 lsy2665@

kbc 한국해양진흥공사
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

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활약을

기대海

해운·항만 인프라 투자로 대한민국 해양영토를 더 크고 더 넓게!!
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활약을 기대海

한국해양진흥공사 2030 미래상

- 01 총 자산 20조원
- 02 선박금융 공금 1위
-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
-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등급